

전남 서부권

목포신항 플랜트 설치 난항

기아차 “쇳가루 분진 안돼”…한영산업 “불허시 행정소송”

목포신항 플랜트 설치에 따른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영산업이 지난 8일 허가를 신청해 주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목포시와 목포지방항만청, 목포신항(주), (주)한영산업이 목포신항에 플랜트를 설치하고 신항을 활성화 시킨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는 신항에 플랜트시설을 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자동차 수출 선적항을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투자유치협약까지 체결한 목포시가 3개월도 안 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피해여부 등 관계 기

업들 간의 조정도 없이 플랜트시설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이유는 공장이 가동될 경우 대형플랜트 조립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쇳가루, 폐인트 등으로 수출하는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기아차 동차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영산업은 골리앗 크레인과 선박 메가 블록, 해양 플랜트 등을 생산해 국내 및 호주, 유럽 등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항만 부지내 7만550㎡에 360억원을 투자해 연간 고용인 30만명과 월 2만의 생산으로 연매출 2000억원의 목표로 이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영산업은 피해여부 등의 검증도 없이 반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

로하고 있다.

한영산업은 지난 8일 목포항만청에 다목적부두 트랜스포크레인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물류는 지속적 확보

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

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 관계자는 “항만법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기아자동차 선

적항만 이동 등 적절치 않은 이유로

불허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노조를 정치 세력화 하지 말라”

해남군청 노조원, 공무원 집행부에 개선요구

해남군청 일부 직원들이 노조가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남군청 공무원 노조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대변해 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많은 조합원의 지지 속에 탄생한 노조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언제부터인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노조가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로 시끄럽고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노조가 정치 세력화 되고 노조 간부출신이 지역정치의 한 축이 되어 많은 직원과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뜻있는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또한 협의회는 “복수 노조를 만들기 위함이 절대 아니며 노조를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노조를 만들기 위한 개선요구”임을 밝히면서 5개 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5개 항은 ▲공무원 노조의 정치 및 선거 불개입 철폐 ▲오영택 전 지부장 급여지급 시정조치 및 정치 또는 선거활동시 급여 중단대책 강구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 ▲민주노총 탈퇴와 공무원 노조관련 외부 불법 ▲조합비 인하 및 자체 적립금 현황 공개 등이다.

한편 해남군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1년 직장협의회로 시작해 2010년 전국공무원 노조(통합노조) 해남군 지부를 출범했으나 노조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법외노조 상태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노조가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로 시끄럽고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노조가 정치 세력화 되고 노조 간부출신이 지역정치의 한 축이 되어 많은 직원과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뜻있는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미키로즈가 봄마중 나왔어요”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의 모닝팜농원 직원들이 9일 오전 농장 하우스에서 앵초과 꽃 ‘미키로즈’를 출하하고 있다. 신품종인 미키로즈는 출엽·입학식과 봄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연합뉴스

순창 발효미생물 센터 재단법인 출범

순창군이 발효 유전자원의 산업화와 발효 미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건립한 발효미생물 관리센터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재)발효센터는 지난달 순창군, 순창군의회, 제조업체 등 12명의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재)발효센터는 앞으로 전국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발효미생물산업 및 발효식품산업 육성

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획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추진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순창 HACCP 메주공장 운영과 품질관리 지원 등과 함께 발효식품 및 기능성 소재의 개발과 생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인형 순창군수는 “산·학·연·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순창을 발효미생물 종가 중심지로 육성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어류는 피라미로 1008마리였으며 ▲참갈기나 479

마리 ▲돌고기 304마리 ▲붕어 154마리 ▲칼남자루 125마리 모래무지 117마리 ▲배스 111마리 ▲쉬리 109마리 등이었다. 이밖에 납지리, 참마자, 벼들치, 참종개, 등사리, 눈동자개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천의 어류는 지난 2006년 23개 종에서 2008년 24개 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스는 2006년에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 2008년 19마리, 2009년 8마리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009년과 비교해 14배나 급증하며 쉬리의 개체수를

전주천 ‘배스’ 주의보



마리 ▲돌고기 304마리 ▲붕어 154마리 ▲칼남자루 125마리 모래무지 117마리 ▲배스 111마리 ▲쉬리 109마리 등이었다. 이밖에 납지리, 참마자, 벼들치, 참종개, 등사리, 눈동자개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천의 어류는 지난 2006년 23개 종에서 2008년 24개 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스는 2006년에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 2008년 19마리, 2009년 8마리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009년과 비교해 14배나 급증하며 쉬리의 개체수를

증가하였다.

하천의 생태 검강성을 대표하는 것 대중인 쉬리는 2006년 91마리에서 2008년 76마리, 2009년 65마리 등으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주이제 21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덕진보가 철거된 이후 쉬리가 상류 까지 폭넓게 진출하여 개체 수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른 물고기 를 달리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만큼 제거 방안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완도 수목원은 자연 학습장”

500여종 식물 전시…볼거리 풍성

완도수목원에 조성된 아열대 온실이 대왕야자, 벤자민고무나무 등 200여종의 식물들과 함께 금호, 펜타글 등 300여종의 다양한 선인장 종류를 함께 전시해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0일 전남도 완도수목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을 제외하면 남부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완도수목원의 아열대 온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열대·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다양한 식물을 모아 일반인이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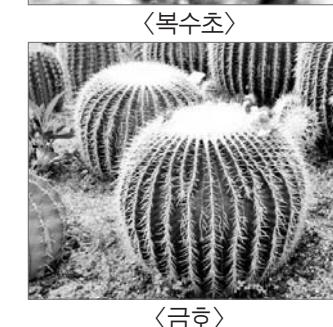
대왕, 워싱턴, 코코스, 카나리, 공작야자 등 다양한 아지류와 고무나무, 아리우카리아, 판금나무, 구아바, 바나나, 금귤, 하귤 등 다양한 열대·아

열대 과일류를 함께 볼 수 있어 마치 열대우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다육식물원에서는 금호, 펜타글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 다육식물(선인장처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식물)들을 넘으



<복수초>



<금호>

로 접할 수 있어 기념촬영 명소는 물론 자연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종수 완도수목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난대산림 자원의 현지내 종 보전에도 앞장 서는 한편 아열대온실 등 현지외 종 보전에도 노력해 1년 내내 볼거리와 배울거리가 풍성한 수목원으로 특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전 북

전북 ‘태양광 집적단지’ 본격화

세계 3위 OCI 투자로 해외기업들 새만금 입주 관심

전북도와 새만금 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이 ‘글로벌 솔라(Solar)밸트’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전북도는 군산~익산~완주를 중심으로 구축해 있는 솔라밸트의 잠재력에 세계 3위 태양광 기업인 OCI(주)의 새만금단지 투자를 시작으로 해외 유망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솔라밸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OCI(주) 인근 입주를 탄진하고 있는 해외 유망기업 및 국내의 우수한 태양광 산업 기업들이 새만금 단지 투자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관련 간접화 및 새만금 현장 방문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경제청은 앞으로 태양광 산

업에 신규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관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최근 국내외 투자유망 분야인 필름 등 부재료 생산업체와 산업용 특수기기 공급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해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솔라밸트의 구축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계획 추진과정의 최대 관건은 새만금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전력문제다.

현재 새만금단지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을 놓고 한전, 지역주민 등과 대립이 최대 혼란으로 펼쳐졌다.

OCI(주)가 공장의 본격적 개장 시기인 내년 말까지 전력공급이 예상된다

는 확신이 없으면 새만금 투자를 제

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고비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경제청은 철탑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OCI(주)가 경북도 등 타지역의 러브콜에 흔들리지 않고 새만금단지에 안심하고 투자해 국내외 고객들과 한 97억달러 생산납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전북의 세계적 태양광 집적단지화 사업은 한 후 최소 100년 이상 전북도의 경제도 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김철수기자 nogus@

“中 진출 U턴 기업을 잡아라”

무안군, 청다오서 한중산단 기업유치 설명회

무안군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무안 기업도시 내 한중산단 투자유치에 나선다.

무안군은 “무안기업도시 투자유치 단지” 오는 14~16일 중국 칭다오(青岛)를 방문해 청도 국제선박 등 중국 현지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국 기업유치 설명회는 청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무안 한중산단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도 국제선박의 주선으로 마련된다.

청다오는 6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아래 기업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중국 내 임금인상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기업유치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함평 양민 학살 사료집 추가 발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무고하게 학살된 함평 양민집단 학살과 관련한 사료집이 추가로 발간됐다.

함평 사건 학생유족회(회장 정근숙)는 지난 2009년 사료집 1 발